

광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증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전국 지자체 성과대회' 2관왕

광주 광산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증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올해 성과대회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통합건강증진사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광산구는 이번 성과대회에서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미래위기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평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 ▲지역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대 추진전략, 11개 추진과제, 43개 세부과제로 구성·수립됐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건강 격차 해소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된 건강서비스 지원 등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박병규(왼쪽에서 네번째) 광산구청장이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또 종합부문과 전략부문으로 평가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지역의 종합적인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종합부문 평가에서 광주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광산구가 추진한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을 이롭게! 건강 광산 ▲취약이웃과 상생하는 건강돌봄 ▲'젊은 도시' 미래를 위한 '건강한 먹이' 가꾸기 ▲건강 100세! 어르신 건강지킴이 등이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2년동안 9차례에 걸쳐 건강 관련 각종 평가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광산구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보건복지부 평가 2관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건강증진 선도 지자체로서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아파트협의회' 지원 나선다

공동체 주거문화 구심점·주민 소통 창구 역할 기대

광주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민주, 전남 1·2동)이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협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조례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까지 받고 있는 반면 '아파트협의회'는 상대적으로 구청 등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운영일)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파트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조영임 의원의 권의를 받아들여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실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조례제정에 앞서 구의회 회의실에서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조영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채수진 수원지구아파트입주대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소촌동·운남동·하남동·침단1동 아파트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7만 세대 중 75.5%가 아파트 위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민 간의 우호적 교류를 돕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아파트협의회'가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영임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아파트협의회'가 조례를 통해 공식화된다면 공동주택의 주거 관련 현안들을 지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파트협의회가 주민의 소통 창구로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지방 물가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물가 관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 등을 평가해 발표했다.

광주시는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6종)을 동결하고, 택시요금은 시민 체감도를 고려해 하반기인 7월로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자치구, 소비자 보호단체와 물가 조사, 가격표시제 등 캠페인을 추진하

는 등 물가 관리에도 힘썼다.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대응책을 고민하고 시민 토론회를 통해 택시 요금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만족하지 않고 고물가 상황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 따로 같이' 그림책 만나요"

이야기꽃도서관, 차은실 작가 그림책 전시...9월30일까지

광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은 "차은실 작가의 방 '우리, 따로 같이' 그림책 전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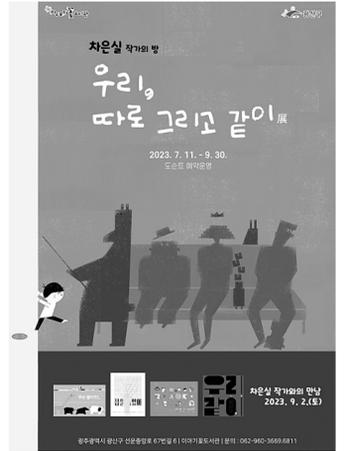
차은실 작가는 나와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로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야기꽃도서관 3층 작가실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그림책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작가의 책상', 그림책 속 혼자 있는 캐릭터를 주제로 한 '따로의 공간', 그림책 속 함께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같이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그림책 원화 작품은 물론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스케치, 더미북, 영상 등도 함께 전시한다. 작가의 책상을 그대로 옮겨와 설치해 작가가 평소 사용하는 그림 재료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9월 2일 오후 1시에는 작가 강연이 열린 예정이다. 그림책 제작 과정 소개, 팝업그림책 만들기 체험 등 독자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야기꽃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차별과 분리가 아닌 타인에 대한 작은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도슨트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운영한다. 궁금한 사항은 이야기꽃도서관(062-960-3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광주 광산구는 "지난 7월 모아모아행복센터(광산구 산정동)에서 시민참여단 28명과 함께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양에 광주 동구 도란도란안녕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여성친화도시 추진배경과 이해 ▲시민참여단 역할 관련 역량 강화 ▲시민참여단 분과별 모임 및 활동 의제 도출 ▲모니터링 현장 활동 사례 사례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성평등, 역량강화, 안전, 돌봄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일상 속 불편 사항 모니터링 구성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모두가 상생하는 성평등 광산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